

2022년 국방부 업무보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2021. 12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목 차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III. 2022년 핵심추진과제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7

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8

③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8

VI. 2022년 '국방' 이렇게 바뀔니다 11

【별첨】 4년 반 동안 성과 /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우리 軍은 지난 4년 반동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님의 통수지침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에 진력

1. 주요 정책성과

□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北 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상황관리
 - 北 탄도미사일 (발사체) 발사를 100% 완벽하게 탐지 및 대응
- 北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제·대응 능력 강화
 - 고위력·초정밀의 독자적 대응 능력과 北 미사일 감시·요격 능력 확충
 - '韓美 미사일지침' 개정 ('17. 11월 / '20. 7월) 및 종료 ('21. 5월) 를 통해 우리 軍의 미사일·우주발사체 역량 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주변국 작전활동 감시 및 영공침범 시 단호한 퇴거작전 시행
 - 주변국 군용기 KADIZ 진입 시 대응 및 우발적 긴장고조 방지노력 병행
-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태세 강화
 - 대테러부대 확대, 사이버안보 합동부대 지정·전략수립, 국방 우주력 발전 추진 여건 조성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

□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체결 ('18. 9. 19.)
 - 남북 11개 GP 시범철수 ('18. 11월) 및 JSA 비무장화 ('18. 10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18. 12월) 진행

- 지난 3년여 동안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구체적·실효적으로 기여
 - 군사합의 이전 北 DMZ 內 총·포격 도발 100여회, NLL 침범 및 무인기 영공침범 사례 다수
- DMZ 內 화살머리고지 ('19. 4 ~ '21. 6월)·백마고지 ('21. 9월 ~) 유해발굴 진행
 - (화살머리고지) 유해 424구, 유품 10만여점 발굴, 9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확인
 - (백마고지) 유해 22구, 유품 8천여점 발굴, 다수의 아군유품과 특이유품 발굴
- 서울안보대화 인사·의제 확장 등으로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

※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

□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가속화

- 한국군 주도 미래 연합지휘구조 기본안* 확정 ('18년),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 ('20년)
 - * 現 연합사 체제를 유지,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 등
-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19년),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FOC 예행연습 ('20. 8월, '21. 3월, '21. 8월) 시행
- '21년 SCM 시 '22년 FOC 평가 시행 결정
-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방위력개선비 증액*으로 전작권 전환 역량 확보
 - * 지속적인 방위력개선비 증액 ('18년 13.5조원 → '22년 16.7조, 23.7%↑)

※ 정책·전략적 대미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 국방개혁 2.0 강력 추진으로 '강군 육성' 발판 마련

-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정예 군사력 구조로 발전
 -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로 개편, 작전·전투 중심으로 병력구조 재설계
-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 확보
 - 첨단 기술에 연구역량 집중 (R&D 예산 : ('17) 2조 7,838억 원 → ('21) 4조 3,314억 원 (55.6% 증가))

※ 現 정부 임기 內 국방개혁의 실질적 완성 추진

□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정부와 産·學·硏의 역량을 결집시켜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 5명), 주요 출연 기관장 (7명) 및 민간전문가 (3명)로 구성
 - 民·官·軍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국방부 內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 국방 과학기술 정책 방향 결정 △ R&D 진흥여건 조성 △ AI·드론 등 유관부처 협력 위한 조정·협의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국방 全 분야에 적용하여 도전적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미래 전장 양상에 적응력 확보
 - AI의 全 국방분야 적용 및 무인전투체계 전력화 가속화 노력

※ 국방과학기술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행복한 국방환경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구현

- 장병 인권강화, 병영문화 혁신 및 병 복무여건 개선
 - 평일 외출·외박 지역 확대 ('19. 2월), 휴대전화 전면 사용 ('20. 7. 1.)
 - 영창제도 폐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국가인권위원회 內 군인권보호관 설치 ('21. 12월, 법안 국회통과) 등 군 인권보호 기반 구축
 - 병 봉급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시행, 복무기간 3개월 단축, 軍 급식체계 개선 등
- 범정부 코로나19 대응에 軍 가용 인적·물적 자산 총동원 下 지원
 - 누적 인력지원 130여만명 (의료인력 11만여명, 행정·수송인력 119만여명)
 - 코로나19 전담병상 최대 517개 지원 (누적 치료환자 3,039명)
 - 생활 치료센터 285실 지원 (누적 치료환자 5,941명), 백신수송·경계지원
- 「국가무한책임」 구현을 위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대
 - 발굴지역 확대, 국민캠페인 등으로 발굴유해 신원확인 및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증가
 - 유해발굴 : '18년 357구 → '19년 558구 → '20년 514구 → '21년 370구
 - 신원확인 : '18년 4구 → '19년 7구 → '20년 19구 → '21년 23구
 - 유전자 시료채취 : '18년 4,155명 → '19년 8,936명 → '20년 8,973명 → '21년 12,618명
 - 美.DPAA에 보관된 국군유해봉환 (280구), 미군유해봉송 (13구), 6·25참전국 협력 MOU체결 (4개국), 중국군유해송환 (256구) 등 국제협력 지속 추진
 - 국군유해봉환 : '18년 65구 → '20년 147구 → '21년 68구
 - 미군유해봉송 : '18년 2구 → '20년 5구 → '21년 6구
 - MOU체결 : '19년 호주, '20년 네덜란드, '21년 캐나다·콜롬비아
 - 중국군유해송환 : '18년 20구 → '19년 10구 → '20년 117구 → '21년 109구

-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적극적·선제적 지원체계 구축
 - 가축질병 확산 방지, 산불, 헝가리 유람선 사고, 청주 여중생 실종, 태풍·수해 피해 등
- 장병 권리 보장을 위한 軍 사법제도 개혁 (군사법원법 '21. 8월, 국회통과)
 - 성범죄 민간법원 재판, 군 항소심 민간 이관, 군 검찰 각 軍 통합 설치, 관할관·심판관 폐지 등
- 여군 인력 확대 ('17년 5.9% → '21년 8.2%) 및 일·가정 양립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장병들이 만족하는 선진 병영문화 개선과 국민이 공감·신뢰하는 軍 구현

□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력 신장

-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획득제도 정착 및 국내업체 기술경쟁력 강화
 - 효율적 국방획득체계 개선 및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역량 강화
 - 8대 핵심기술 (무인화, 센싱, 초연결, 초지능 미래추진, 특수소재, 에너지무기, 생존방호) 개발 가속화
 - 무기체계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및 방산수출 지원체계 강화
 - 과거 年 30억불에 머물던 방산 수주금액이 現 정부 평균 40억불 달성
 - 특히, 국정 결실기 수출규모가 방위력개선비 국외지출 규모 (年 50억불 내외)를 넘는 등 방산수출 100억불 시대의 초석 마련
 - 대외적으로는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확대*, 대내적으로는 범부처 방산수출 협력체계 고도화를 통해 방산수출 기반을 견고화
- *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 '16년 33개국 38개 ⇨ '21년 46개국 53개

※ 국방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주도적인 방위산업 육성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대통령님 강조사항 *국군의 날 기념사('21. 10. 1.), 서울 ADEX 2021 ('21. 10. 20.)

-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임
-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추진 및 첨단국방과학기술 軍 적용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워야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軍은 단호히 대응할 것임.

□ 상황인식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가운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해·재난,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대
- 국민은 전작권 조기전환을 통한 책임국방 구현, 국방개혁 2.0의 실질적 완성을 통해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 '22년 국방정책 추진방향

-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 "국력에 걸맞는 책임 국방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 가속화 추진
- "국민이 신뢰하고 군장병이 자랑스러워하는 軍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장병 복지·복무여건 개선 및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軍 장병 인권 강화

※ 이를 위한, 2022년 핵심추진 과제

-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 ③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
 - 긴밀한 韓美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對北 감시태세 강화
 -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韓美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
-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
 -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 *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생태조사 등 지원
 -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면서,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으로 유해발굴 확대
 -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 및 '남북협력' 時 군사적 지원
-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軍의 임무수행능력 강화
 - 軍대테러부대 장비·물자 보강, 제2 軍대테러 종합훈련장 추가 확보 추진
 - 국가적 재난극복 지원역량 강화,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 확립
- 국방 우주역량 획기적 강화
 - 국방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 기반 마련
 - 효율적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 추진
 -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 (핵·WMD 위협 대비 4조 7,667억 원)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 (8조 1,149억 원)

※ 안보상황 변화에도 軍 본연의 임무완수를 통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

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韓美간 정책적·군사적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
 - 韓美 국방장관 회담 및 안보협의회의 (SCM, 10월), 군사위원회 회의 (MCM, 10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반기 1회), 상설군사위원회 (PMC, 반기 1회)
- COTP 수정1호 부록·별지 개정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22년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 시행을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 체계적 준비
 - '22년 SCM간 FOC 평가결과 검증을 포함,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
- 국방개혁 2.0과 연계 下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 등을 통해 우리 軍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

※ 우리 軍이 韓美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지휘능력과 역량을 구비

③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추진,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증액 지원, 자기개발 지원액 확대 등 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직업군인 처우개선 (현업공무원 지정, 당직근무비 인상 등)
 - 軍 급식체계 개선, 피복·침구류 품질개선 및 상용품 도입,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확대 등 軍 복무에 전념하도록 지원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노후·부족 간부숙소 집중 개선
 - 간부숙소를 대체하는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 신설 추진
 - 군 주거시설 관리 전문 수탁기관 지정·운영 및 위탁 확대
- 군 의료시스템 개편
 - 국군외상센터를 정상 개원 ('22년 초) 하여 총상·폭발상 등 외상 진료능력 확보
 -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현역병 (상근포함) 민간병원 진료비 90%까지 국가에서 지원
 - 환자전담팀 보강 및 활성화를 통한 대군 신뢰도 향상
-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
 - 대상자별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로 취업률 제고
 - 군경력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자격 우대방안 확대 추진
 -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능력 확충, 유해발굴사업 개선 방향 설계 추진
-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선제·적극적 재난대응 및 지원
 - 국방통합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력화 준비
 - 재난지원 임무에 최적화된 장비·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
 -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확산방지, 자연·사회재난에 총력 지원
-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계기, 전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 위험물질 관리 등 군의 안전취약 분야 위험요인 저감

-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개선 추진
 -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 개선안 정착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 강력한 성폭력 근절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가칭: 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추진
 - 성폭력 사건 신고·보고체계 개선 관련 법률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추진
 -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성폭력 신고 앱 도입 예정
- 여군인력 확대 지속 추진
 - '22년 목표 8.8%보다 상향된 9.2%수준까지 확대
 - 여군인력 확대에 따른 여군 주거·근무여건 개선 등 병행
- 장병 인권강화 및 軍 사법제도 개혁
 - 개정된 「군사법원법」 '22. 7. 1부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內 군인권 보호관설치 관련 법안* '22년 중 시행
 - * 군인권보호관 법안 시행령 개정시 협조
 - 장병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구제 강화를 위해 인권 관련 주요 기능을 통합한 전담조직 (인권국) 설치 추진

※ 복무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재난지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 정착

VI. 2022년 '국방' 이렇게 바꿉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軍은

-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하에 정부정책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
-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 체결·이행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성과를 달성
-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육성의 발판 마련
- 선진 병영문화 혁신으로 軍 복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

□ '22년도에도 우리 軍은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확립
-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동력을 유지
-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
- 국방개혁 2.0을 실질적으로 완성하여 강력한 정예 강군 육성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영문화를 정착함으로써,

□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첨단전력 증강 》

○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홍범도 유해수송, 미라클작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

‘하늘의 주유소’라고 불리우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급유기로 '19년까지 총 4대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이 다목적 항공기는 도입 이후 공중급유 목적 이외에 백신수송 지원, 청해부대 34진 귀국, 홍범도 장군 유해송환 등 수송 작전 최일선에서 맹활약 중이다. 또한,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급변사태에 따라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한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의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이번 미라클 작전을 통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공군 전투기의 작전지속능력을 향상시키는 주 역할에 더해 우리 군의 해외 작전능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지인 조력자들을 수송한 작전은 책임을 지는 성숙한 국가로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강한 자부심과 든든함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 해양강국의 꿈을 담은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취역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 ‘마라도’로 명명된 두 번째 15,000톤급 대형수송함이 지난 6월 취역하였다.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 인수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사이다. 대형수송함 1번 함인 독도함 이후 14년 만에 취역한 마라도함은 독도함 운용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최신 장비들을 탑재함으로써 전투능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독도함 건조 시 해외에서 도입했던 주요 장비들을 성능이 향상된 국산 장비들로 교체함으로써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마라도함은 다목적 합동 전력으로서 입체 고속상륙작전수행에 기여하고, 재해·재난 시 구조작전 지휘,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국제평화 유지 활동 등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7번째 SLBM 발사 등 고위력·첨단 무기체계 개발 성공

2021년 9월 15일 국방부는 도산 안창호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였다. SLBM은 가지고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군사력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수중의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군이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능력을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기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명중하는 모습은 믿기질 않을 정도로 정확하였다.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 국산 잠수함으로서 공기불요시스템 (AIP) 탑재를 통해 수중작전 지속일수가 증가하였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관계자는 AIP 방식의 디젤잠수함에 SLBM을 탑재한 것은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SLBM 개발에 대한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이 매우 크다고 K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리 군의 다양한 미사일도 언론 공개하였다. 장거리공대지 미사일은 선진국의 유사한 미사일 보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핵심 전략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차세대 무기체계로서 향후 KF-21에서 운용된다고 하니 우리 군의 독자적 전략 수립과 작전수행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 기존 해외도입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대비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비용은 수출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순항미사일은 아음속의 속도 때문에 적 방공망에 요격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공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기존 아음속 순항미사일 대비 수 배의 속도와 목표지점으로 비행하는 항법이 우수하여 상대방이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거리의 다양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마지막으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탑재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웅장한 발사 장면에 이어 수 백 km 거리의 표적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 국산전투기 KF-21 시제기… 한반도 미래의 하늘을 열다

'21년 4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의 능률한 모습을 보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전투기는 첨단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이전이 어려워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인데, 세계 8번째 독자 개발의 첨단전투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기 한정도 우리기술로 만들지 못해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드는 나라로 성장한 상황이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부품 교체에도 제한이 없으며, 우리가 개발한 무장을 마음껏 장착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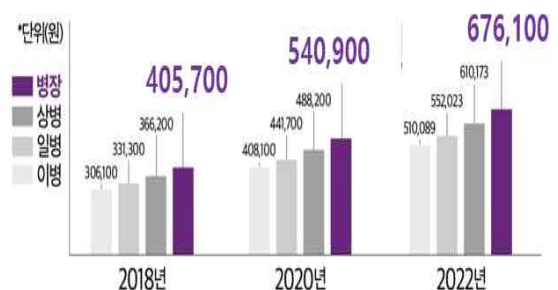
또한, KF-21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꿈꿀 수 있는 있는 KF-21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계기가 된 듯 하며, 향후 수출을 통해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한다.

KF-21은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 (Korea Fighter)라는 의미에서 KF-21로 명칭이 정해졌다. KF-21이란 명칭처럼 가까운 미래전에 대비해 유·무인 전투기 복합운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오리-X'라는 명칭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하여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레이더를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체계이다.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꿈과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올해 12월에 입대하여 자대에 배치된 김이병은 분대장 이병장에게 '요즘 정말 좋아진 군대'에 대해 소개받았다. 먼저 자신이 받고 있는 병장 봉급이 '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인 608,500원 (병장기준)이며, '22년 676,100원 (병장기준) 까지 인상할 예정이므로 김이병이 전역을 할 시기에는 병장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추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목표로 「병 봉급 연차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8년에는 병 봉급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금리 (5%)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였다.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지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1년 11월 기준 29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별 월 평균 29.6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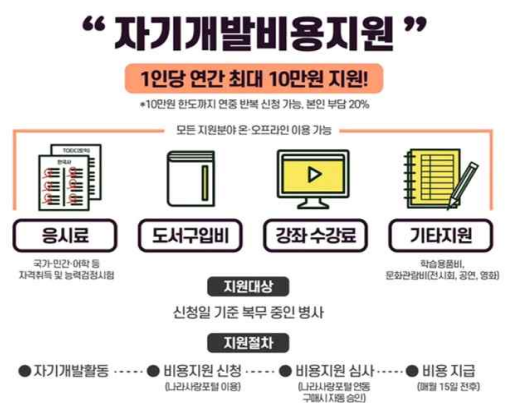
김이병도 병 봉급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추천 받았는데, 전역시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복지준비금 제도이다. '21년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한 1% 이차지원과 납입 원리금의 1/3을 매칭지원하는 사회복지준비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전역시 일정수준 이상의 (약1,000만원) 목돈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 자산형성 지원 및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개발 지원 강화

김이병은 입대전 사회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아 OO대학에서 전공과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다. 입대 후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제도 참여하여 관련 수업을 수강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공부도 병행하여 전역전에 준비된 사회복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군 복무 중 원격강좌를 통한 학점 취득 제도 참여대학을 2017년 141개에서 2021년 173개로 확대하고, 2019년부터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21년 기준 63개 대학이 참여 중. 또한, 강좌, 독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제도 신설



○ **여군 인력·진출 확대에 따른 일·가정 양립지원**

전방 OO사단에 근무하는 박중사의 남편은 같은 사단에 근무는 한중사로 부부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올해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부대 관사 아파트에 공동육아 나눔터와 직장 어린이집 등 여성 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육아가 가능한 근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여군 선배들이 주요 직위에 보직되거나 상위계급에 진급률도 확대되고 있어, 미래 여군 주임원사를 꿈구며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 한중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 **국방부 본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군인재해보상과 신설**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21. 3. 30일부로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하였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19. 12. 10. 공포)이 시행(20. 6. 11.)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번에 신설된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군사법원 재판권의 민간 이관 》

○ **군 사법 개혁을 통한 장병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강화**

올해 9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공포되면서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군 사법 개혁'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정 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22년 7월 이후에 성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민간 경찰·검찰 및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게 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사 및 재판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을 민간으로 이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군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하여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지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시에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군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 맡김으로써, 장병들이 사실심에서 민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강화시킬 것이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국방 AI+무인체계 발전 》

○ 국방에 AI와 드론봇을 적용,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전투력 향상 기대

국방부는 국방 AI 분야와 무인체계 분야에 대해 민간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와 협업, 5G 융합서비스 공공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해군사관학교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앞당겼다. 생도들은 홀로그램 원격강의를 통해 현장감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실감형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날씨와 관계없이 현실감 있는 조정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학년 000생도는 “스마트 캠퍼스의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흥미가 증진되었고, 교육 능률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GOP와 해안에 AI를 적용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구축된 레이더·음원활용 AI 경계시스템의 오탐율이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발전된 지능형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군 의료분야에서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폐렴, 결핵, 기흉, 척추, 사지 골절 등 군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 AI로 의료영상을 분석하여 군의관의 진단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 및 실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발의 골절, 뇌출혈, 뇌경색 등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솔루션이 고도화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주행 시스템과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시범운영 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운전병 활용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택시와 버스 등 차량에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차종과 적용부대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는 비레이저기반(전자기파펄스)의 전투훈련 체계¹⁾, 실시간 전투훈련 가시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플랫폼, 5G 기반 실 전장과 같은 유사환경을 위한 통합형 전투훈련 체계 등 구축을 통해 그 실전성 향상과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비레이저기반(전자기파펄스) 전투훈련 체계 :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하는 현재의 교전훈련체계는 레이저 빔이 나뭇잎·유리 등을 투과하지 못하고 차폐·반사되어 실탄의 효과가 제한적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이저 대신 전자기파펄스를 활용하여 교전훈련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